白雲詞考

車 柱 環*

1. 前 言

高麗 後期의 文豪 李奎報(1168~1241)는 대체로 奔放不羈한 詩人으로 오늘날까지 일리워져 왔으나 그의 詞作에 관해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筆者는 年前에 高麗史 樂志의 唐樂을 연구할 때에 李奎報의 文集인 東國李相國集에서 敎坊의 口號 致語 등을 뽑아내어 參考資料로 정리한 일은 있었으나 그의 詞作에 관해서는 손을 대지 않았었다[1].

東國李相國集을 살펴 보면, 前集과 後集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前集은 李奎報 在世時에 정리 간행되었던 것이고, 後集은 그의 卒後에 前集에 遺漏된 詩文을 찾아모아서 編成한 것이다. 이 前後集은 다 李奎報의 嗣子인 涵이 정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詩文의 分類는 대체로 요령을 얻었다고 하겠으나, 詩는 細分하지 않고 다만 古律詩라는 名目을 세워 古今 各體의 詩를 收錄하는 방법을 취했다[2]. 그런데 前後集에 걸쳐 古律詩로 收錄되어 있는 篇章 가운데 6調 11篇의 詞가 編入되어 있다. 詞를 따로 모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詞가 들어 있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기 쉽다. 敎坊의 口號 致語 등을 많이 지어낸 그가 詞에 관심이 없었거나 그것에 생소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다만 그가 詞作에 대해 詩의 경우 같은 흥미를 덜가져 그것을 위해 별로 정열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詞作品이 적었을 뿐이었을 것이다. 또 李奎報는 지금 전해지는

---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敎授(中國文學)

① 拙文 高麗史樂志唐樂考(震檀學報 第23號, 1962) 注 30참조.

② 古典刊行會(東國文化社)의 縮小影印本「東國李相國集」에 따름.

그의 文集에 收錄된 11篇 이외에도 많은 詞를 지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前集의 李需序에 "(그의 작품의) 萬分의 一을 수습했다" (收拾萬分之一)이라고 한 것이라던지, 後集의 李涵序에 "어른께서 일생동안 지으신 것은 많았다. 그러나 본래 (作品을) 보존해 두지 않았고 또 남들이 가져가고 돌려주지 않았거나 혹은 태워버리거나 해서 겨우 全作의 10分의 2 3이 남았을 뿐이었으므로 편집하기 어려웠다."(大人平生所著，多矣。然本不收蓄，又爲人取去不還，或焚棄之，僅存十之二三，故難於編綴。) 라고 한 것 등을 보아도 그 점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6調 11篇의 詞調 詞題 및 收錄處는 다음과 같다.

詞 調	詞 題	收錄處
臨江仙	希禪師方丈觀碁一首	前 8・91a～b
望江南	籠中鳥詞一首	前 15・161b～162 a
漁家傲	登家園遙聽樂聲卽作詞一首	後 4・485 b
浪淘沙	重九無聊有空空上人盧同年來訪小酌泛菊因有感作詞一首	後 5・493 b
	雨君見和又作一首	後 5・493 c
桂枝香慢	丙申年門生及弟等設宴慰宗工朴尙書予於筵上作詞一首并序	後 10・547b～548 c
	是日三朴學士見和復次韻一首	
	又別贈門生一首	
	次韻李侍郎需和桂枝香詞見寄二首	
清平樂	六月一日朴學士暄設華筵會客并邀予參赴酒酣作詞一首贈之	後 10・548b～549 a

李奎報는 白雲居士로 自號하였으므로 그의 詞를 白雲詞로 命名하고 考察을 가해보기로 한다[3].

③ 白雲居士傳(前集, 雜著, 223 d—224 a)：白雲先生，先生自號也。 白雲居士語錄(同上, 220d—221 c)：平生唯酷好琴酒詩，故始自號三酷好先生。然琴未精，作詩未工，飲酒未多，而享此號，則世之聞者，其不爲噱然大笑耶？翻然改曰白雲居士。

2. 臨江仙

〔原詞〕

希禪師方丈觀碁

夜靜紅燈香落炮，蚍頭兎勢縱橫。但聞字響紋枰。誰饒誰勝，山月漸西傾。
十九條中千萬態，世間興廢分明。箇中一換幾人生。仙柯欲爛，回首忽相驚。

〔，句/，讀/。韻〕

〔大意〕

希禪師의 方丈에서 바둑을 구경함

밤 조용한 붉은 등에 향은 불똥 떨구는데
뱀 대가리와 토끼 기세 縱橫으로 엇갈린다
단지 들리는 건 바둑알이 무늬진 바둑판 울리는 소리
누가 더 놓게 해주고 누가 이기고 하는 동안
산 위의 달은 점점 서쪽으로 기울어진다

열아홉 줄 가운데의 千萬 가지 喜態
세상 흥망의 이치 뚜렷해진다
그 가운데 한번 바뀌는게 몇 차례의 인생인가
신선의 도끼자루 썩으려 해서
고개 돌려 새삼 서로들 놀란다

臨江仙의 詞體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詞는 雙調 58字 前後段 각 5句 3平韻의 것에 따른 것이다. 欽定詞譜 卷10에 例示된 다음의 張泌의 煙消湘渚詞와 平仄法까지도 대체로 같다.

臨江仙　　張　泌

煙消湘渚秋江靜，蓮花露泣愁紅。五雲雙鶴去無蹤。幾回魂斷，凝望向長空。
翠竹暗流珠淚怨，閒調寶瑟波中。花鬟綠雪重。古祠深處，香冷雨和風。

李詞는 聲律에 상당히 충실하다. 前段 第3句의 「字」는 「子」의 誤字임이 분명하다. 이 詞는 僧房에서 圍棋를 구경한 감상을 쓴 것인데 개인

적인 특수한 내용은 없다. 前段에서는 圍棋가 진행되는 광경과 그 환경의 상황을 다뤄 詞題의 풀이를 하고 있다. 後段에 들어가서는 圍棋에서 千態萬象을 드러내는 局面에 세상의 興亡을 直結시키고 "仙柯欲爛"의 傳說을 현실과 연결시켜보는데 그치고 있다. 用語는 平淺한 편이고 詩語의 調節이 적절하고 雕琢의 痕跡이 없다.

3. 望江南

〔原詞〕

籠中鳥詞

籠中鳥，竟日幾千廻。縱有一鳴脣舌在，那堪四觸羽毛摧。餧食益哀哀。

天上路，回首夢悠哉。再浴鳳池猶有意，新栖烏府豈無媒。且復待時來。

〔大意〕

장 속의 새

장 속의 새
종일토록 몇 千 바퀴
한바탕 울어댈 입술과 혀 있기는 하나
어찌 견디랴 사방에 걸려 깃과 털 뜯기는 걸
먹기에 굶주리니 더욱 슬프다

하늘 위의 길
머리 돌려보니 꿈 아득하다
다시 鳳池에 목욕하기 아직도 뜻 있고
새로 烏府에 옮기는데 어찌 중매 없겠는가
잠시 또 때 오기를 기다리는 거라

望江南은 본래 憶江南의 別稱으로, 單調로 된 것이 1體, 雙調로 된 것이 2體 있다. 李詞는 雙調 54字 前後段 각 5句 3平韻으로, 결국 單調로 된 憶江南을 포갠 형식의 것이다. 다음의 歐陽修의 江南蝶詞와 같은 體

다[4].

憶江南　　歐陽 修

江南蝶，斜日一雙雙。身似何郎曾傅粉，心如韓壽愛偷香。天賦與輕狂。
微雨過，薄翅膩煙光。繩伴遊蜂來小苑，又隨飛絮過東牆。長是爲花忙。

李詞는 平仄이 歐陽修의 江南蝶와 꼭 符合하지는 않는다. 대체로 句의 長短과 韻 만을 맞춘 정도에서 그친 것이라 하겠다. 자신의 不遇한 처지를 籠中鳥로 상징해서, 해방되어 雄飛하게 될 날을 기대하는 심정을 나타낸 것이다. 前段에서는 극도의 空間的인 拘束과 飼養의 缺乏에서 오는 고통과 비애를 말하고 있다. 「脣舌」은 自己表現을 가능케하는 재능 내지 실력을 상징한 것이라 하겠고 결국은 자기의 文學的인 쟁능을 의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5]. 後段에서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어느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겠다는 심정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썼는데, 鳳池와 烏府를 내걸어 너무 현실적인 功利가 제시된 것같은 감이 없지 않다. 다만 鳳과 烏가 鳥類이므로 文面上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 鳳池는 鳳凰池의 略稱으로 中書省의 所在地인데 일반적으로는 宰相을 의미한다. 烏府는 御史府의 別稱으로, 烏臺나 烏署라고도 한다. 그 出處로는, 漢書 朱博傳에 "御史府中列栢樹, 常有野烏數千，棲宿其上，晨去暮來，號曰朝夕烏."라고 한 것을 들 수 있다. 말은 전체를 통해 平明한 편이고, 詞를 짓는 데는 用語가 平淺하고 表現이 暢通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게 작용했음을 느끼게 한다.

---

④ 欽定詞譜 卷1, 詞律 卷1에 圖解되어 있음.

⑤ 李奎報의 白雲小說(詩話叢林 所收)에 역시 다음과 같은 文才를 自負한 글이 보인다. "其或操觚引紙，題詠風月，則雖長篇巨題多至百韻，莫不馳騁奔放，筆不停輟，雖不得排比錦繡，編列珠玉，亦不失詩人之體裁。顧自負如此，惜終與艸木同腐，庶一提五寸之管，歷金門，上玉堂，代言視，艸作批勅訓令，皇謨帝誥之詞，宣暢四方，足償平生之志，然後乃已。豈碌碌瑣瑣，求斗升祿，謀活其妻子者之類乎！嗚呼，志大才陳，賦命窮薄，行年三十，猶不得一郡縣之任，孤苦萬狀，有不可言者，頭顱已可知已。"이 글에 나타난 심정과 籠中鳥詞의 含意가 비슷한 것을 느낄 수 있다. 혹시 한 時期의 作이 아닌가 싶다.

4. 漁家傲

〔原詞〕

登家園遙聽卽作詞

鱗錯萬家遙可按。玉樓高處褰羅幔，應是筵開紅錦爛。方望斷。唯聞風送金絲慢。 緬想倡兒渲露腕。嬌顏捧酒流微盼。日脚垂欹人不散。遮老漢。灰心煽起那堪亂。

〔大意〕

집 동산에 올라가 멀리 풍악 소리를 듣고 곧 詞를 지음

비늘같이 섞여 있는 萬으로 헤아릴 집들 멀리까지도 알아볼 수 있다
玉樓 높은 곳에 집 장막 걷어 올려 있다
틀림없이 잔치자리 버려지고 붉은 비단 찬란할 거라
막 다 視野가 끊어지는데
오직 들려오는 건 바람이 보내 오는 풍악 느슨한 소리

멀리서 생각하건대 歌姬가 옷소매 치켜올려 팔을 내놓고
애교 띈 얼굴로 술잔 치켜들고 가느다란 눈길 흘리는데
햇발 기울어도 사람들 흩어지지 않을 거라
이 늙은 사나이
씩은 마음 부채질해 일으키니
어찌 어지러워짐 견뎌내겠나

漁家傲도 그 體가 여러가지 있다. 이 李詞는 雙調 62字 前後段 각 5句 5仄韻으로 된 體에 따른 것으로 晏殊의 晝鼓聲中詞와 平仄까지도 대체로 같다[6]. 晏詞는 다음과 같다.

漁家傲 晏 殊

晝鼓聲中昏又曉。時光只解催人老。求得淺歡風日好。齊揭調。神仙一曲漁家傲。 綠水悠悠天杳杳。浮生豈得長年少。莫惜醉來開口笑。須信道。人間萬事何時了。

⑥ 欽定詞譜 卷14, 詞律 卷9에 각각 圖解되어 있음.

老境에 접어든 李奎報가 家園 높은 곳에 올라가 櫛比한 建物들을 바라볼 때 玉樓 高處에서 풍악소리가 울려오는 것을 듣고 美姬의 접대를 받으며 飮酒歡樂하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소년시절의 宴樂을 되새겨보는 자신을 漁家傲調로 써낸 것이다. 前段에서는 玉樓를 보고 金絲聲을 듣는 것을 통해 歡樂場을 연상하게 되는 실마리를 끌어내고 있다. 「金絲慢」의 「慢」은 本集에는 「幔」字 같이 보이나 第2句의 韻字와 重複되고 또 樂聲을 말하는 것이므로 「慢」字라야 어울린다. 後段에서는 宴席에서의 美姬의 勸酒와 歡樂에의 沒頭를 상상하면서 소년시절에 行樂을 추구하던 마음을 느껴보는 것을 써낸 것이다. 약간의 悲慨는 깃들어 있으나 深厚한 점은 별로 찾아 볼 수 없고 도리어 浮薄한 느낌을 갖게 하는 기미가 있다. 다만 詞語의 驅使는 퍽 自在하나.

5. 浪淘沙 2首

其一

〔原詞〕

重九無聊有空空上人盧同年來訪小酌泛菊因有感作詞一首

黃菊趁前期。已滿東籬。無人也與泛金巵。賴有詩朋來見訪，小酌開眉。 伊
昔少年時。醉揷芳枝。狂歌亂舞任人欺。往事追思祇自悵，似夢亦非。

〔大義〕

九月九日 무료하던 차에 空空上人과 盧同年이 來訪하여 간단히 술을 들고 국화를 띄웠다. 그래서 느끼는 바가 있어 詞를 한 首 짓는다.

노랑 국화는 지난날의 철 따라
이미 동쪽 울타리에 가득 피었다
아무도 함께 쇠술잔에 띄울 사람 없더니
詩友들 찾아와 주어
간단히 술을 들고 얼굴 활짝 펴 본다

지난날 젊었을 때
술취해 芳香 풍기는 국화 가지 머리에 꽂고
미친듯 노래하고 어지럽게 춤추며 남들이 깔보는 것 상관하지 않았었다
지난 일 회상하니 단지 혼자서 서글퍼지며
꿈같기도 하고 아닌 듯도 하구나

浪淘沙와 浪淘沙令 浪淘沙慢에 각각 數體 씩이 있는데 李詞는 雙調 54字 前後段 각 5句 4平韻으로 된 浪淘沙令의 正體에 따른 것으로, 다음의 南唐後主 李煜의 簾外雨潺潺詞와 同體이고 平仄도 대체로 같다[7].

浪淘沙令 李 煜

簾外雨潺潺。羅衾不耐五更寒。夢裏不知身是客，一晌貪歡。 獨自莫凭闌。
無限江山。別時容易見時難。流水落花春去也，天上人間。

李奎報의 이 黃菊趁前期詞는 重陽節에 來訪한 詩朋과 菊酒를 欣賞하며 쾌활했던 少壯時를 추억한 것을 써낸 것으로, 語辭가 平淺하고 詞意가 和緩한 편이다.

其二

〔原詞〕

兩君見和又作

何處赴佳期。步繞園籬。欣逢二老始傾巵。一曲俚歌猶未聽，何況娥眉。 人壽幾多時。有似花枝。紅潮借臉酒全欺。豈必秋來悲逝景，莫是朝非。

두친구 가 和作해 주어 또 짓는다.

어디로 좋은 때 보내러 가는가
걸어서 정원의 울타리를 돈다
기꺼이 두 老人 만나 비로소 잔 기울인다
한 가락의 俗謠조차 못듣는 판에
하물며 美姬야 어림도 없다
사람의 壽命이 얼마나 되는가
꽃가지와 같은 게 있다

⑦ 欽定詞譜 卷10, 詞律 卷1에 각각 圖解되어 있음.

紅潮를 얼굴에 띠워줄은 술이 전부 속인 것
어찌 꼭 가을이 와서 시간 지나감 슬퍼하랴
저녁녘에 좋던 것이 아침이면 망가지는 걸

이것은 前言에 次韻한 것으로, 前段에서는 詩朋과의 초라한 交歡을 다루고 後段에서는 인생의 속절없음을 말하고 있다. 措語가 精潔하고 詞意가 淒婉한 편이다.

6. 桂枝香慢 5首

其一

〔原詞〕

丙申年門生及第等設宴慰宗工朴尙書予於筵上作詞一首幷序

五月十七日，丙申年門生及第等，大設華筵，慰座主朴尙書(廷揆)致政。以予其年亦預試席， 故幷邀參赴。又迎朴樞院(棍)朴學士(仁著)朴侍郎(暉) 同宴。予酒酣，卽席作詞一首奉呈云。桂枝香慢。

光華慶席。正玉笋參羅，迎致嘉客。還有嬌花，解語近前堪摘。殷勤好倒千金酒，幸相逢、不妨歡劇。兩翁俱老，門生獻壽，古今難得。　念往日。貪遊好樂。恨枯瘦如今，何處浮白。多喜開筵，別占洞天仙宅。莫敎舞妓停飄袖，顧看看、紅日西側。笑哉殘叟，搖肩兼將手雙拍。

〔「宅」字下註：借朴樞府宅，花草奇景最勝。〕

〔大意〕

丙申年에 應試한 門生과 及第者들이 잔치를 베풀어 宗工 朴尙書를 위로했는데 나는 잔치자리에서 詞 한 首와 序를 지었다.

五月十七日에 丙申年에 應試한 門生과 及第者들이 대대적으로 화려한 잔치를 베풀어 座主 朴尙書 廷揆가 致仕한 것을 위로했다. 내가 그해에 역시 參試官으로 끼었었기 때문에 함께 불러서 참석시킨 것이다. 또 樞院 朴棍,

學士 朴仁著, 侍郎 朴暉를 맞아다 함께 향연했다. 나는 술이 얼근해지자 즉석에서 詞를 한 首 지어 바쳤다. 桂枝香慢에 의한 것이다.

빛나고 화려한 경사스러운 좌석
바로 옥같은 손 드리운 아가씨들 늘어서서
좋은 손님들을 환영한다
또 고운 꽃 말할 줄 아는 것이
앞으로 다가오니 따볼만 하다
조심조심 千金가는 술 잘 따르라
다행히 서로들 만나게 되었으니 실컨 논들 어떠랴
두 어른 같이 늙으시고
門生들 축수하는 잔 드리니
古今에 드믄 일이로다

지난날 생각하니
놀기를 탐내고 즐기기를 좋아했다
한스럽기는 비쩍 말라버린 지금
어디에서 대판 마시겠는가
무척 기쁘기는 잔치 버리는데
특별히 이 洞天의 신선 댁을 정한 것
舞姬가 옷소매 펄렁이는 것 멈추게 하지 마라
도리켜보니 붉은 해 서쪽으로 기울어졌다
우습다 기운빠진 이 늙은이
어깨 으쓱거리며 거기다 두손으로 장단을 친다

桂枝香慢은, 欽定詞譜나 詞律에는 慢字가 달린 것이 없고 高麗史 樂志의 唐樂에는 慢字가 있는데, 長調로 101字 100字 99字 98字 등 여러 體가 있다. 李奎報의 것은 6首가 전부 雙調 100字 前後段 각 10句로 되어 있다. 韻法은 좀 특수하다. 押韻된 字는 6首에 걸쳐 前段 席, 客, 摘, 酒, 劇, 壽, 得; 後段 樂, 白, 宅, 袖, 側, 叟, 拍으로 되어 있다. 仄聲韻이기는 하나 陌韻字와 宥韻字가 交錯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欽定詞譜와 詞律에는 이러한 體는 보이지 않는다. 雙調 100字로 된 周密의 巖飛逗緣詞가 있으나 句法과 韻法이 迥異하다. 세밀하게 비교 검

또한 결과 李詞는 雙調 101字 前後段 각 10句 5仄韻의 體에서 後段 4字 2句를 7字 1句로 한 것임이 분명해졌다. 王安石의 登臨送目詞를 이 體의 代表例로 들 수 있다[8].

桂枝香　　王安石

登臨送目。正故國晚秋，天氣初肅。千里澄江似練，翠峰如簇。征帆去棹殘照裏，背西風、酒旗斜矗。綵舟雲淡，星河鷺起，畫圖難足。　念自昔、繁華競逐。歎門外樓頭，悲恨相續。千古憑高，對此漫嗟榮辱。六朝舊事如流水，但寒煙衰草凝綠。至今商女，時時猶唱，後庭遺曲。

이 王詞를 基準으로 해서 살펴볼 때 李詞는 後段 末2句를 7字 1句로 하여 100字體가 되었고, 여기에 내놓은 한篇과 다음 篇에서는 後段 第1句「昔」字 자리를 韻脚으로 잡은 것이다. 짐작하건데 李奎報가 처음에는 이 王安石의 詞를 보고 「昔」字가 韻字같이 入聲이어서 그대로 韻脚으로 잡은 것이 아닌가 싶다. 혹시 2篇의 경우에 한해서 「日」字가 우연히 쓰여졌는지도 모르겠다. 王詞의 後段 末2句를 "時時猶歌後庭遺曲"으로 하여 8字 1句로 만드는 例도 있었으므로[9], 李奎報도 혹시 그러한 8字句에서 「遺」字의 자리를 떨어뜨려 버리고 7字 1句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陌韻과 宥韻의 交錯韻法에 관해서는 他例를 찾아볼 수 없다. 혹시 지금 전해지지 않는 李詞 같은 雙調 100字體의 桂枝香의 詞體가 따로 있었을지도 모른다.

筵席과 그 환경을 대단스럽게 써내고 그가운데에 참여해서 少壯時를 회억하며 노쇠한 것도 무릅쓰고 환희의 소용돌이 속에 휩쓸려들어가는 자신을 描出한 것이다. 辭語가 平明하고 詞氣가 疏逸하다. 高麗의 故事로는 考試官을 座主라고 부른다. 丙申年은 高麗 高宗 2年(1236)으로, 이 해에 朴廷揆가 考試官의 한사람으로 閱試하였고, 序文에 "以予其年

⑧ 欽定詞譜 卷29, 詞律 卷16에 각각 圖解되어 있음.

⑨ 詞律 卷16 桂枝香條의 萬樹注에 다음과 같은 말이 보인다 : 以王詞結句"時時猶唱"作"時時猶歌"，且連末句作八字。故以爲又一體，豈大謬乎！

亦預試席" 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李奎報도 考試官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東國李相國集에 附錄된 李奎報의 年譜에는 이해에 그가 知貢擧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그대로라면 朴廷揆가 李奎報 밑에서 參試官으로 閱試했던 것이 된다. 이 연회는 朴廷揆가 致仕한 해에 베풀어진 것이다.

李奎報는 丙申年 다음해인 丁酉年 70歲에 致仕했으므로[10] 이때에는 이미 老軀여서 後段에서 자신을 殘叟라고 부른 것이다. 前段의 "兩翁"은 朴挺揆와 李奎報 자신을 두고 한 말로 보는 것이 옳겠다. 高麗의 故事에 따라 座主와 그의 老父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는 극히 어렵기 때문이다[11]. 後段 「宅」字 밑에 "借朴樞府宅花草奇景最勝" 11字가 雙行으로 注記되어 있다. 朴樞府宅을 비려서 筵席을 차렸는데 그곳은 花草를 곁드린 경치가 극히 秀麗하다는 것이다.

其二

〔原詞〕

是日三學士見和復次韻

笙歌簇席。更錦繡襲熏，瓊弁賓客。門擁桃華李艷，往年親摘。仙香暗動金杯酒，興飛揚、飲酣談劇。紅粧慢唱，爭前祝壽，不教歸得。　　記昔日。曾經此樂。俱重到歡場，雙賓添白。侵夕將廻，更坐忘還家宅。有時豁起遭牽袖，任蹉跎，烏帽倚側。笑哉殘叟，連呼倡兒促檀拍。

〔大意〕

---

⑩ 文集年譜에도 나타나 있고, 後集 卷 2(463c—d)에는 「丁酉十二月二十八日乞退表蒙允可，是夜喜不得寢，因成長句二首，奉寄李學士百全」「十二月 二十九日 頒政以門下平章致仕有作三首」 2種의 致仕詩가 收錄되어 있다.

⑪ 高麗史 卷74 選擧條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國俗掌試，謂之學士，門生稱之則恩門，門生座主之禮甚重。學士有父母，若座主在，旣放榜，必具公服，而門生縱行隨之，學士拜於前，門生拜於後。衆賓，雖尊長，皆下堂庭立，俟禮畢揖讓而升，以次拜賀。於是學士邀至其第，奉觴稱壽。" 또 李齊賢이 처음 考試官이 되었을 때 그의 老父母가 앉아 있어 門生을 거느리고 稱壽한 일이 전해진다. 高麗史 李瑱傳에 "子齊賢掌試，領門生稱壽。忠宣賜銀二百，米五百石，以供其費。瑱及妻，皆康强無恙，當世榮之。"라고 보인다.

이날 세 學士가 和作해 주어 다시 次韻한다

笙歌 연주하는 樂士들 자리에 모여 있고
거기다 錦繡에선 훈훈한 향기 엄습해 오는데
경옥으로 장식한 고깔 쓴 귀빈들
복숭아꽃 화려한 것 오야꽃 고운 것
往年엔 손수 땄더니라
仙界의 향기 쇠 잔의 술에서 은은히 움직이고
흥이 소꾸쳐 올라
되게 마시고 마음껏 이야기한다
붉게 단장한 歌姬 느즉이 노래 하고
앞다투어 잔 바치며 축수해오고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기억하거니와 지난날
일찌기 이 즐거움 가졌었다
함께 다시금 환락의 마당에 다다르니
양쪽 귀밑머리에 흰머리 더해졌다
저녁으로 접어들어 돌아가려 하다가
다시 앉아서 집으로 돌아가기 잊어버린다
때로 떨치고 일어설라치면 옷소매 잡아당김 당하곤 하여
시간 지나가는대로 내버려두고 검은 모자 비딱히 기울어 있다
우습다 기운빠진 이 늙은이
연달아 외치누만 歌姬에게 檀拍 재게 치라고

前詞의 序文에 朴楶 朴仁著 朴暉 3人이 筵席에 참여했음이 언급되어 있다. 이들이 李奎報의 光華慶席詞에 和作해서 그것에 李奎報가 다시 次韻하여 이 詞를 지었다는 것이다. 後段 第2句 "曾經此樂"밑에 "戊戌年，予之四度門生等，設如此筵，慰于致政。此門生亦於其日在焉。" 27字가 雙行으로 注記되어 있다. 李奎報는 丁酉年(1237) 12月에 致仕했으므로 그 翌年인 戊戌年(1238)에 그가 試官으로 있을 때에 應試했던 사람들이 잔치를 베풀어 그의 致仕를 위로했던 것이다. 四度라고 한 것은 그가 試官으로 참여했던 回數를 말한 것으로, 年譜에 의하면 그는 乙酉年

(1225)에 司馬試에 閱試했고, 戊子年(1228)에 同知貢擧로 春場에 閱試했고, 甲午年(1234)에 知貢擧로 역시 春場에 閱試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가 말한 四度門生은 이 네차례에 應試했던 사람들을 말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丙申年의 門生도 물론 그때의 慰勞宴에 나왔을 것이다. 後段 첫 4句는 그 일을 쓴 것이다.

後段 第4句의 「賓」字는 鬢으로 보아야 함. 前段에서는 音樂과 美姬와 名酒가 마련된, 貴賓이 滿座한 宴席에서 극진한 환대를 받으며 도도한 흥이 우러나는 가운데 음주와 담소에 열중하는 광경을 써냈다. 後段에서는 자신의 致仕를 위로해준 年前의 盛宴을 생각하여 자기가 더 늙은 것을 자각하면서도 老軀를 무릅쓰고 酒興에 휩쓸려 춤을추고 돌아가는 자신을 웃어본 것이다. 豪放한 老詩人이 자기의 暮年에 부치는 感慨가 凄麗하게 襯托되어 있다. 桃華李艶은 美姬들을 형용한 말로 취할 수도 있겠으나 여기서는 門生들을 나타낸 말로 보는 것이 옳겠다. 蹉跎는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형용한 말이다. 檀拍은 樂舞의 節度를 나타내는 拍板이다.

其三

〔原詞〕

又別贈門生

當年試席。在蟻戰正酣，誰是門客。經了千淘萬汰，始登採摘。天墀拜受黃封酒，便飛榮、翼脩鳴劇。奈今開宴，稱觴奉壽，此情良得。　老坐主乘酣快樂。更呼索華牋，濡染氷白。方信門生，以是美田良宅。起離妓簇香餘袖，要歸時、扶我身側。笑哉殘叟，洪崖肩高醉堪拍。

〔大意〕

또 따로 門生들에게 준다

당시의 시험 자리
개미 싸움 막 한창인데
누가 門客이었던가

千차례 萬차례의 淘汰를 거쳐
비로소 뽑히는 자리에 올랐다
궁궐 지대에서 黃封酒 받고는
곧 榮光 드날려 날개 짙어지고 우는 소리 세차졌다

지금에 와서 잔치 벌리고
잔 올리고 축수하니
이 뜻 정말로 좋다

늙은 座主는 술 얼근해 즐거워져
또 소리쳐 華牋 달래서
어름같이 흰 채다 먹물 적신다
비로소 밀어지거니와 門生들
이 美田과 良宅으로 잔치자리 잡은 까닭을
자리를 일어서자 妓女들 향기 흔근히 풍기는 옷소매 도아오고
돌아갈려 할 때 내 곰 곁에서 부축한다
으슥다 기운빠진 이 늙은이
洪崖신선 같이 어깨 높아 술취해 두드린만 헌데

前段에서는 무서운 淘汰를 거친 후에 登第하여 명성을 올려 지금에 와서는 盛宴을 베풀고 座主 등을 향연하게 된 것을 장하게 여기는 뜻을 피력하고 있다. 後段에 넘어가서는 座主가 붓을 들고 雪白한 華牋에 지은 詩 내지 詞를 쓰는 광경을 말하고, 座主의 詩情을 돋구기 위해 美麗한 邸宅에 筵席을 차린 門生들의 底意를 알게 된 것에 연급하고, 부축을 받으며 筵席을 떠나는 자신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 詞情이 淸逸하다. 門客은 試官에게 뽑힌 應試者 즉 及第者를 말한 것이다. 黃封酒는 國王이 及第者에게 내리는 술이다. 洪崖는 傳說上의 上古의 仙人으로, 洪崖(지금의 중국 江西省에 있음)에서 살았다고 해서 洪崖先生이라고 불렸다는 것이다. 黃帝의 신하 伶倫이라고도 하고 혹은 堯임금 때에 이미 三千歲였다고도 한다.

其四, 其五

〔原詞〕

次韻李侍郎需和桂枝香詞見寄二首

門人宴席。有貴介滿堂，多是親客。慚我衰髯渾浩，倩人方摘。金鍾電飜流霞酒，顧如儂、飲誠云劇。但無夫子，相酬屬壽，麾由邀得。　竟日暮吟詩共樂。嘆曹在無劉，元在無白。無問誰家，第一養花豪宅。千葩爛玦倡兒袖，余無言、解語同側。可憐衰叟，還圖觥船與君拍。

詩筵酒席。自往昔縱遊，因號狂客。天上星辰雖遠，筆頭皆摘。殘年遇子同傾酒，與題詩、漸成繁劇。君猶年少，豫登老壽，尚皆相得。　已退縮將誰與樂。恨孤負春風，桃李紅白。將子殷勤，不惜往來窮宅。縱欣擲玉堆盈袖，欲親攀、歌詠陪側。許容迂叟，詞源相誇浪相拍。

〔大意〕

次韻 侍郎 李需가 내 桂枝香詞에 和作하여 2首를 보내 주었다

門人들의 잔치 자리
滿堂에 존귀한 분들
거의가 친한 손들
부끄럽다 내 힘없는 수염 온통 희어져
남에게 부탁해서야 없애게 되니
쇠술그릇 번개 술잔의 流霞酒
본래 나같은 사람
술마시는 것 정말 대단하다
단지 그대 없어
서로 술잔 주고받고 축수하고 싶은데
맞아올 길 없다
날저물 때까지 詩 읊조리며 함께 즐기는데
개탄스럽긴 曹子方은 있는데 劉景文이 없고
元稹은 있는데 白居易 없는 거라
누구네 집이냐고 물을 것 없다
첫째가는 꽃가꾼 호화로운 저택이라
千가지 꽃 찬란하게 歌姬의 옷소매 비치니
어찌하리 말없는 꽃과 말하는 美姬들 한곁에 있다.
가련한 이 늙은이

그래도 술잔배 그대와 함께 두드리게 되기를 피하고 있다

詩짓는 자리와 술좌석에서
옛날부터 감껏 놀아
그래서 狂客이라 불리웠다
하늘 위의 별들 비록 멀기는 하나
붓끝으로 그것들을 모두 따온다
晩年이 되어 그대 만나 같이 술잔 기울이고
함께 詩를 쓰고 하는 것
점점 잦고 심하게 되었다
그대는 그래도 나이 젊으나
나는 늙은 나이 되었는데
그래도 다 마음 맞는다

이미 遲衰하여 버렸으니
누구와 함께 즐길 건가
저버리기 한스럽기는 봄바람에
桃李花 붉고 희고 한 것
간절히 그대에게 바라거니와
내 궁벽한 집 오가는 것 아끼지 말라
비록 옷소매에 가득한 玉더미를 기꺼이 던지더라도
마주 앉아 노래하고 읊조리며 곁에 뫼시고 싶다
용서하라 이 우활한 늙은이
詞를 자랑하여 되구말구 두드리는 것을

이 2篇의 詞는 李需가 李奎報의 桂枝香詞에 和作해 보낸 것에 다시 次韻한 것이다. 高麗史 卷102 李淳牧傳 끝에 李需의 略傳이 붙어 있다. 李需는 李奎報의 子侄輩 정도로 年少했고 醜行으로 惡名도 높았으나 李奎報와는 文學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12]. 李奎報가 자기 文集(즉 東國李相國集前集)의 序文을 李需에게 쓰게 하였을 정도였다. 이

---

⑫ 高麗史에는 李奎報에 대해서도 "好色嗜酒，無節操"라고 좋지 않게 쓰여져 있다. 李需에 대해서는 "以文學知名，穢行如此，人皆醜之。"라고 했다. 李需가 喪妻한 후에 妻姪婦와 통한 일을 두고 穢行이라고 한 것이다.

詞를 보면 李需는 그 筵席에 참석하지 못했고 또 당시는 李奎報를 자주 찾아 주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詞에서 그의 來訪을 갈망하는 정을 토로한 것이다. 첫篇은 좋은 筵席에서 李需와 詩酒로 즐기지 못한 것을 가석해 하는 심정을 나타낸 것이다. "嘆曹在無劉"의 曹劉는 蘇軾의 六客宴會詞에 나오는 "曹·劉今對兩蘇張"의 曹劉로 曹子方과 劉景文이다[13]. 혹은 文心雕龍 比興篇에 "揚, 班之倫, 曹, 劉以下, 圖狀山川, 影寫雲物"이라고 한 曹劉로도 볼 수 없지는 않겠으나, 宴會를 중심으로 해서 말한 것이므로 前者로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 後者의 경우 曹劉는 魏의 曹植과 劉楨이다. "元在無白"의 元白은 中唐의 詩人 元稹과 白居易다. 後段「宅」字 밑에 "來章云'且問第幾侯宅,'故云。是宅草木第一。" 17字가 雙行으로 注記되어 있다. 李需의 詞에 "또 묻겠는데 몇번째의 귀족 저택이오"하고 말한데 대한 대답으로 "無問誰家, 第一養花豪宅。"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둘째 篇에서는 李奎報가 晩年에 李需를 만나 忘年交로 詩酒로 同樂하는 정과 금후에도 접촉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하는 뜻을 피력하고 있다. 後段의 "縱欣擲玉堆盈笥"는 詩經 衛風 木瓜篇에 나타난 贈答의 뜻을 취해서 쓴 것으로[14], 李需가 詩詞를 지어내면 자기가 기뻐서 그것에 次和해낼 용의가 있음을 나타낸 말이다.

---

⑬ 蘇軾의 六客宴會詞는 東坡樂府 卷上에 보이는데 定風波調에 의한 것이다. 序文으로 看做할만한 長題가 있다. 同調는 다음과 같다.

定風波　　蘇　軾

予昔與張子野, 劉孝叔, 李公擇, 陳令舉, 楊元素, 會于吳興。時子野作六客詞, 其卒章云, "見說賢人聚吳分, 試問, 也應旁有老人星。" 凡十五年, 再過吳興, 而五人者皆已亡矣。時張仲謀, 與曹子方, 劉景文, 蘇伯固, 張秉道爲坐客。仲謀請作後六客詞云。

月滿苕溪照夜堂。五星一老鬪光芒。十五年間眞夢裏, 何事, 長庚記月獨凄涼。

綠髮蒼顏同一醉, 還是, 六人吟笑水雲鄉。賓主談鋒誰得似, 看取, 曹劉今對兩蘇張。

⑭ 衛風 木瓜篇: ① 投我以木瓜, 報之以瓊琚。匪報也, 永以爲好也。 ② 投我以木桃, 報之以瓊瑤。匪報也, 永以爲好也。③ 投我以木李, 報之以瓊玖。匪報也, 永以爲好也。

7. 清平樂

〔原詞〕

六月一日朴學士喧設華筵會客并邀予參赴，酒酣，作詞一首贈之。

虛臺豁榭。自足清風，未知朱夏。不分豪門亦呼我。宴席綺包羅襲。　可憐雨箇紅粧。皓齒笑，勸玉觴。感極敢辭芳酒，唯愁歸路扶將。

〔大意〕

六月一日 學士 朴喧이 화려한 잔치를 차리고 객을 모았는데 나도 불러 참석케 했다. 술이 거나해져 詞를 한 首 지어서 증정했다.

빈 樓臺 넓은 정자방
본래 맑은 바람 넉넉하여 더운 여름 모른다
豪門 여부 가리지 않고 나도 불러주었다
잔치자리는 비단과 집으로 싸였다
귀여운 두 붉게 단장한 美姬
흰 이 드러내고 웃으며 옥술잔 권한다
감격 극했으니 芳香 풍기는 술 사양하랴
오직 근심은 돌아가는 길에 부축해 주는 일

清平樂은, 李白의 禁闈清夜詞를 正體로 한다[15]. 그것은 雙調 46字, 前段 4句 4仄韻, 後段 4句 3平韻으로 다음과 같다.

清平樂　　李　白

禁闈清夜。月鐙金牕罅。玉帳鴛鴦噴蘭麝。時落銀鐙香灺。　女伴莫話孤眠。六宮羅綺三千。一笑皆生百媚，宸遊敎在誰邊。

李奎報의 清平樂은, 이 李白의 것에 비해 前段 第2句가 4字句 들로 되어 있는 것이 다를 뿐이다. 따라서 李奎報의 清平樂은 雙調 49字, 前段 5句 4仄韻, 後段 4句 3平韻이 된다. 高麗史 樂志의 清平樂과 더불어 他例를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體타 하겠다[16].

---

⑮ 欽定詞譜 卷5, 詞律 卷4에 각각 圖解되어 있음.

이 詞는, 詞題에 언급되어 있는 것 같이, 朴暄이 베푼 酒宴에 참석해서 筵席의 호화로움과 美姬의 勸酒로 劇飮하는 것을 써서 筵席에 참여시켜준 호의에 감사하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前段에서 "不分豪門亦呼我"라고 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지만, 朴暄은 崔怡의 寵臣으로 한때 그 위세가 대단하여 그가 베프는 酒筵에 초청되는 일조차도 쉽지 않았을 정도였다. 高麗史 卷 125 姦臣傳에 朴暄의 略傳이 들어 있다. 前段 第3句 끝에 "廣廈虛豁，足容百人，華侈不可勝言 。" 14字가 雙行으로 注記되어 있다. 李奎報가 酒宴에 초청되어 갔을 무렵에는 朴暄의 위세가 절정에 달해 있었던 것 같아서 그 저택의 건물이 100人을 수용할 정도로 큰데다가 화려하고 사치스러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까지 말했을 것이다. 李奎報는 그렇듯 세도가의 초청을 받아 호화로운 筵席에 나가 紅粧美姬가 교태를 부리며 권하는 술을 감격하는 마음으로 사양없이 받아마시고 詞를 지어 主人에게 증정한 것이다.

8. 結 語

李奎報는 詩文大家로 알려졌고 또 지금 전하는 그의 文集에는 詩와 文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多樣해서 당시 향연에 수반하여 上演되던 敎坊의 歌舞에 대해서도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임했고 또 口號 致語 勾合曲 등등을 지어 직접 그것에 간여하기도 했다. 이렇듯 敎坊 歌舞에 대한 理解가 깊었으므로 그가 敎坊에서 歌唱되던 歌詞에 대해서도 그것이 歌唱되는 상태에서 그 실정을 파악하고 있었으리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敎坊의 歌

⑯ 高麗史 卷71에 淸平樂 1篇이 載錄되어 있는데 56字로 句法과 韻法에 混亂이 있다. 淸平樂에는 詞譜나 詞律에 다루어지지 않은 體가 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만 이 李奎報의 淸平樂은 酒席에서의 作이므로 前後 第2句에 混同을 일으켰을 憂慮가 없지 않다.

詞는 결국 詞이므로 그는 詞作에 손을 대는데 필요한 산 지식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당시 傳來한 歐陽修 王安石 蘇軾 黃庭堅 등을 비롯한 宋代의 詩文大家들의 文集에도 다 相當量에 달하는 詞作品이 編入되어 있어 李奎報는 宋一代에 全盛한 詞文學에 대해서도 그 상황 내용 技法 등등에 걸쳐 꽤 깊은 理解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거기다 그는 古今體에 걸친 詩作에 능통하고 있었으므로 詞作에 손을 댈 수 있는 條件을 고루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詩作과 詞作과의 관계는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그점에 관한 見解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詩作에 숙달하지 못한 입장에서 좋은 詞를 지어내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17]. 淸 陳廷焯도 그의 白雨齋詞話 卷 7에서 다음같 과이 말하고 있다[18].

> 詩詞一理。然不工詞者可以工詩，不工詩者斷不能工詞。故學詞貴在能詩之後。若於詩未有立足處，遽欲學詞，吾未見合者。[19]

詞는 句法 聲調 韻法 등에 걸친 形式上의 規制가 詩와는 비교도 안되게 복잡한 것이다. 그런데 感興이 솟아오르면 즉석에서 詞를 지어내고는 한것으로 보아 李奎報는 詞를 많이 읽었을 뿐 아니라 암송하던 詞가 적지 않았던 것 같고 또 詞體에 대해서도 상당히 익숙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李奎報의 詞에 대한 관념 내지 태도에는, 당시 實演된 敎坊 歌舞의 영향도 없지 않았을 것이어서, 의외로 娛樂氣味가 섞어졌고 輕快한

---

⑰ 원칙적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詩의 律調는 詞보다는 간단하고, 辭語와 意境을 다루는 技法내지 鍛鍊도 詩의 그것을 詞作에도 연결시킬 수 있으므로, 詩의 修鍊이 되어 있어야 詞作에 손을 대는데 힘이 덜 들고 따라서 格式에 맞는 詞를 지어낼 수 있게 된다.

⑱ 陳廷焯의 白雨齋詞話는 中國詞話 가운데에서는 가장 條理있게 꾸며지고 詞評의 태도도 무게와 깊이가 있다. 淸代末期에 중국의 詞文學을 綜合檢討한 것이므로 詞學硏究에 좋은 伴侶가 된다.

⑲ 大意：詩와 詞는 이치가 같다. 그러나 詞를 잘 못짓는 사람은 詩를 잘질 수 있어도 詩를 잘못 짓는 사람은 결단코 詞를 잘 지어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詞를 배울려면 詩에 能熟해진 후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에 詩에 발부칠 곳을 갖지 못하고서 급히 詞를 배울려고 한다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편이다. 11篇의 詞 대부분이 飮酒와 歌舞가 곁들인 환락의 경지가 다루어진 것만을 보아도 이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李奎報 당시는 오히려 詞가 큰 부담을 느끼게 하지 않으면서 知識人들 사이에 꽤 널리 지어졌던 것이 아니었던가 하고 생각된다. 李奎報의 詞에 次和한 사람들이 여럿 登場하는 것을 가지고도 그러한 일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李奎報와 그를 圍繞한 사람들의 詞作 狀況은 韓國詞文學의 起點과 方向을 設定하는데 있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唐宋詞를 보면 調名으로 題目을 대신하고 詞題를 따로 붙인 것은, 蘇軾의 경우는 例外的이지만,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 李奎報의 경우에는 東坡詞의 方法을 踏襲하였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하여튼 詞調는 從屬的인 위치로 돌려지고 詞題에 힘이 주어져 있다. 詩作을 통해 쌓여진 一種의 老婆心의 發露라고 볼 수 있는 동시에 家集에 收錄하기 위한 備忘記의 구실을 시키자는 생각도 작용하였으리라 생각된다[20]. 中國에서는 詞題를 장황하게 다는 것을 극도로 嫌惡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렇듯 詞調名 이외의 詞題를 즐겨 다는 일도 韓國詞文學 전반을 가지고 살펴볼 때 한가지 慣習이 되다싶이 되었으므로[21] 初期作家의 한사람인 李奎報의 詞題方法도, 東坡詞의 方法을 踏襲하였나의 與否를 따지는 일을 且置하고서라도, 그나름으로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詞作에 있어 이른바 詩語와 詞語의 調節이 잘 되어 있어야 好品을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되어 왔다[22]. 李奎報는 詞語에 대한 見解가 확고하게 서있

---

⑳ 李奎報는 詩題도 장황하게 쓰는 습관이 있다. 長題도 모자라서 긴 序文이나 小引을 붙인 例도 적지 않다.

㉑ 筆者는 韓國의 諸家文集에서 詞를 찾아내어 정리한 일이 있다. 그 成果를 亞細亞研究에 5回에 걸쳐 連載한 일이 있다.

㉒ 이것은 극히 微妙한 問題이기는 하나 詞作에 임해서는 첫째로 逢着하게 되므로 詞家들은 이 問題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白雨齋詞話 卷5의 記事 하나를 移錄하여 두기로 한다 : 昔人謂詩中不可著一詞語，詞中亦不可作一詩語， 其間界若鴻溝。余謂詩中不可作詞語，信然。若詞中偶作詩語，亦何害其爲大雅？ 且如 "似曾相識燕歸來"等句，詩詞互見，各有佳處。彼執一而論者，眞井蛙之見。

던 것 같아서 그의 11篇의 詞의 語辭는 그의 詩의 그것과는 迥異하다. 口頭語에 가까운 淺近한 말이 무리없이 詩語와 조절되어 쓰여져 있다. 詞語의 驅使가 自在한 것은 白雲詞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白雲詞 11篇은 첫번의 臨江仙과 望江南 2篇 이외에는 다 晩年에 지은 것들이므로 거기서 少壯時의 氣魄이라던가 迫力있는 意境을 찾아볼려고 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詞作에 임하는 태도가 다소 娛樂的이고 輕快하므로 지어진 詞도 자연 平明 淺露한 데로 흐르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는 陳廷焯의 詞에 대한 見解를 살펴보고 그것을 참고하여 白雲詞의 評價를 試圖해 보기로 한다. 陳廷焯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 溫厚和平，詩敎之正，亦詞之根本也。然必須沈鬱頓挫出之，方是佳境。否則不失之淺露，卽難免平庸。[23] (卷 7)
>
> 無論作詩作詞，不可有腐儒氣，不可有俗人氣，不可有才子氣。人第知腐儒俗人氣之不可有，而不知才子氣亦不可有也。尖巧新穎，病在輕薄。發揚暴露，病在淺盡。腐儒氣俗人氣，人猶望而厭之。若才子氣，則無不望而悅之矣。故得病最深。[24]

솔직하게 말한다면 白雲詞에는 沈鬱頓挫로 형용될만한 면은 극히 稀薄하고 대체로 淺露한 편이다. 또 腐儒氣 俗人氣 才子氣 중의 어느 것이 있다고 지적하기는 어려우나 白雲詞 11篇은 대체로 發揚暴露하는 경향이 현저한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물론 陳廷焯의 詞에 대한 見解가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인가는 검토되어야 할 문제로

㉓ 大意：溫厚 和平은 詩敎의 正理이고 또 詞의 근본이기도 하다. 그러나 (詞의 경우는) 반드시 沈鬱 頓挫한데서부터 (溫厚 和平한 氣韻이) 나와야 비로소 좋은 境地인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淺露한 데로 흐르지 않으면 平庸해짐을 면하기 어렵다.

㉔ 大意：詩를 짓건 詞를 짓건 간에 腐儒氣가 있어서는 안되고 俗人氣가 있어서는 안되고 才子氣가 있어서는 안된다. 사람들은 단지 腐儒氣와 俗人氣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만 알았지 才子氣 역시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모른다. (詩나 詞가) 尖巧 新穎하면 輕薄해지는 결점이 생긴다. 發揚暴露하면 淺盡해지는 결점이 생긴다. 腐儒氣와 俗人氣는 사람들이 그래도 바라보고는 그것들을 싫어한다. 才子氣는 例外없이 바라보고 좋아한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결점을 가장 심각하게 범하게 되는 것이다.

남아 있게 될 것이기는 하나 그래도 陳說은 白雲詞의 性格을 考究하는 데는 좋은 참고가 된다.

韓國詞文學 初期에 白雲詞 같은 規格이 짜인 볼만한 詞作品이 나왔다는 것은, 그 評價의 高下는 어찌되었던 간에, 기억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